

전북특별자치도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지원사업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전라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9월 4일 화요일 (음 7월 25일) 제212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나서야”

전북도가 지역아동센터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사진)은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 법제화 이후 2006년에는 147개 센터에서 4,047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282개의 센터에서 7,14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며,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과 인프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

전북도의회 정례회 5분발언

▶ 관련기사 3편

“282개 센터 7145명 이용
 양적 성장 불구에도 재정난”



비로 월 480만원을 받지만, 이 중 90%(432만원)는 종사자 2명의 인건비(370만원)와 전기요금 등 관리비로 쓰이고, 나머지 10%(48만원)만을 프로그램

치단체의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김기영 의원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29인 이하 센터를 예로 들때, 운영

비에 월 480만원을 받지만, 이 중 90%(432만원)는 종사자 2명의 인건비(370만원)와 전기요금 등 관리비로 쓰이고, 나머지 10%(48만원)만을 프로그램

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 1명당 1만6,500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후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하루 한 끼 밖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방학중 만이라도 1일 2식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전북도의 지원을 요구했고 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도록 전북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기영 의원은 아이들과 종사자들이 정치적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활기찬 교정

전국적으로 대학 개강이 실시된 3일 전주시 전북대학교 교정이 활기찬 대학생들로 가득차 있다.

주민 공동체 복원 노력 ‘결실’

진안군 상가막마을
 행복마을 콘테스트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진안군 상가막마을이 지난날 30일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진안군 상가막마을이 농식품부가 개최한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상금 1000만원과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3일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날 30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콘테스트에 상가막마을 주민 40여명과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군 담당자 등 총 80여명이 참여해 응원

과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상가막마을은 전라북도 예산에서 아름다운농촌만들기 캠페인분야에서 1등을 수상하고, 농식품부의 농민심사와 현장심사를 통과하여 농식품부 콘테스트에 참여했다. 2016년부터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 상가막마을은 ‘진안고원 하늘공원’을 만들어가는 마을 만들기 사례 발표와 전통 장례문화인 상여소리를 선보이며 큰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상가막마을은 해발 450m고지에 자리잡은 아주 비탈지고 열악한 환경의 마을이며, 마을을 둘러싼 산세가 정막처럼 겹쳐져 가도가도 까 마득하다하여 이름도 가막리라고 불린다. 마을전망대에 서면 주변의 산들이 발밑으로 깔리는 진안고원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꼽히고 아름다운 꽃밭으로 ‘진안고원 하늘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마을이다.

예전의 상가막마을은 마을 일에 대한 불투명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였으며 마을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여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였다. 고향을 떠났던 김

금석 이장과 또래 친구들이 마을로 돌아오면서 주민들과 함께 아름답게 마을을 가꾸고 주민들이 서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보려고 다짐하게 되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소리를 퍼포먼스로 진행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만들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큰 대회까지 나오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저 꽃을 심고 쓰레기를 치워 아름다운마을에서 살아보자

2016년 마을의 한 어른신의 유언 따라
 전통장례식 치르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전통 상여소리 계승위해 모든 주민들 참여

마을만들기사업을 시작한 2016년 마을의 한 어른신이 돌아가시면서 꽃상여를 타고 떠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유족들과 마을주민들은 이야기를 듣고 떠나 할 것 없이 서로 도와 전통장례식을 마을에서 치르게 되면서 주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계기가 됐다. 이후 어렵게 복원된 전통 상여소리를 발전·계승하기 위해 모든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축제와 외부 방문객이 있을 때 전통문화공연으로 상여소리를 재현했고, 이번 콘테스트에서 전통 상여

했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군청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열심히 도와주니 이런 수상을 하게 된 것 같다”며 감사해 했다. 김금석 상가막마을 이장은 “시상이나 돈을 떠나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주민들과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며, 진안고원의 품미를 느낄 수 있고, 누가봐도 마을 경관을 보고 탄복할 수 있는 상가막 하늘공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원주 한별고 남녀공학 개편 ‘탄력’

박성일 원주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한별고 남녀공학 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다. 3일 원주군에 따르면 한별고등학교 남녀공학 개편 지원을 위한 추진위원 14명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건의문을 채택해 한별고(교장 장우익)와 원주군에 전달했다.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총 16명의 추진위원 중 14명이 참석했으며 한별고 남녀공학 전환을 적극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별고 남녀공학 추진이 필요하다”며 “남녀학생을 동시 수용해 장기적인 학생수급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25
 www.eyegreen.com 온누리안과
 063 277 2774

마침내! 전라북도 첫 안과병원

온누리안과병원

세계에서 인정받는 # 독자적 기술로 # 더욱 안전하게

전주 · 군산 · 부안 · 고창으로 시간여행 Go~

전북문화관광재단, 5~7일 관광 종사자 · 인플루언서 초청 테마여행 10선 팸투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내 관광관련 종사자 및 인플루언서(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의 신조어) 30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권역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전국의 10개 권역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여행 활성화사업으로, 각 권역에 있는 3~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명소들을 개설키고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로 여행자들을 맞이한다. 시간여행 일공일권역에서는 선사유

적부터 백제문화, 조선의 뿌리, 근대건축유산까지 시간을 관통하는 여행지로 구성되어지며 전북이 속한 제7권역인 시간여행권역지역은 전주, 군산, 부안, 고창이다.

이번 팸투어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제7권역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게 된다. 주요 참여자로는 블로거와 SNS 활동가, 그리고 관광학계 종사자, 관광여행사 관계자 등 30명이다. 이들은 오는 5일에는 경기전, 전통성당, 승광재 등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북관광브랜드 공연 ‘홍도’를 관람하고, 6일에는 전주 팔복예술공장 방문과 군산 새만금상설공연 ‘해적’ 관람, 그리고 군산의 천릿길(선유도 고군산길) 투어, 부안 청자박물관을

방문한다. 또한, 7일에는 고창읍성과 고인돌 박물관을 돌아 볼 예정이다.

이번 팸투어를 총괄하는 한민규 팀장은 “시간여행 권역의 지자체별 대표 관광지와 서브형 관광지의 연계를 통한 관광콘텐츠를 홍보하고 팸투어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북도 권역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의 발굴과 지역 관광 활성화, 그리고 전라북도 관광지 방문유도 및 대표관광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 추가 모집 및 팸투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화관광팀(063-230-7464)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